

빠른 정답

[제16회]

번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1	⑤	2	③	3	③
4	⑤	5	④	6	②
7	④	8	③		

[제17회]

번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1	④	2	③	3	②
4	③	5	④	6	②
7	②	8	③	9	③

정답과 해설

[16 회]

독서

FMDV

1.

정답

⑤ 어린 개체에서는 FMDV가 전신에 과다 증식할 경우 심근(근육) 괴사급성 심부전으로 진행되어 폐사에 이를 수 있다고 하였다.

오답해설

- ① 공기 전파도 가능하므로 '직접·간접 접촉만'이라는 서술은 사실과 다르다.
 ② 물리적 자극은 수포 형성을 돕는 요인일 뿐, 침투 효율을 높인다는 설명은 없다.
 ③ 인테그린은 세포 외막의 수용체이다. FMDV는 세포 외막의 수용체와 결합한 뒤 세포 내부로 침입하는 것이다.
 ④ 수포 파열로 노출되는 것은 체액과 바이러스이지 인테그린 수용체가 아니다.

2.

정답

③ 완전한 바이러스 입자는 '12 펜타머=60 프로토머 구조'로 조립된다고 제시되어 있기에 '60개의 구조 단백질'이라 한 것은 수치를 잘못 환산하였다.

오답해설

① 비구조 단백질이 숙주 면역을 억제해 복제를 돕는다고 하였다.

- ② 바이러스 RNA가 숙주 리보솜에서 번역된다고 명시하였다.
 ④ 인테그린 결합-세포 침투-세포 파괴 순서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다.
 ⑤ 구강·림프조직 등 특정 부위에서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증식한다고 하였다.

3.

정답

③ 변이 바이러스는 세포 내에서 더 빠르게 증식하여 한층 짧은 시간에 완전 입자가 대량으로 조립되므로, 혈중 바이러스 농도가 기존보다 더욱 신속하게 상승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오답해설

- ① 인테그린 결합력이 약화되었으므로 침투 속도가 빨라졌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
 ② 면역 억제는 비구조 단백질 기능이며 구조 단백질 변이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④ 결합력이 약화되면 초기 수포 형성이 강화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⑤ 불활성화 백신은 항체를 주입하는 것이 아닌, 항원을 학습하게 하여 항체의 발현을 유도하는 원리라고 지문에 제시되어 있다.

4.

정답

⑤ ㉔ '면역성을 갖춘다'는 일정하게 지키다, 일정하게 차리다의 의미로 사용되었기에 보유했다와 바꾸어 쓰기 어색하다.

고전소설

EBS 수능특강 19쪽 연재

작자 미상, 「전우치전」

5.

정답

④: 우치가 병으로 들어가자, 장교와 포교들은 우치가 달아날 것을 걱정하며 병을 들고 궁궐로 향하였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해설

- ①: 우치는 조선에서 황금을 처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하여 황금을 판매하기 위해 월남으로 향하였다. 따라서 벼슬아치들에게 벌을 주기 위해 월남으로 간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우치의 집으로 가서 금덩이를 산 인물은 태수가 아니라 포교이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태수는 우치를 잡으러 오지 않았다. 그는 장교와 포교들에게 우치를 잡아올 것을 명령했을 뿐이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병 속에서 우치가 병을 막은 것을 빼어라고 하였지만, 포교들은 이를 들고도 못 들은 척 하며 왕 앞으로 이르렀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6.

정답

②: [A]에서 백성들이 '참혹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벼슬아치 때문임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한편, [A]의 필자는 백성들이 '참혹한 지경'에 이르렀어도 벼슬아치들이 백성들의 살길을 열어 주지 않고 천리에 어긋나는 일들을 행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 ①: [A]의 필자는 자신이 한 행동인 곡식을 나누어 준 것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전하고 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③: [A]의 필자는 '너희들'을 도와준 것을 '하늘'을 대신한 것이라 전한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④: [A]의 필자는 '잠시 남이 가져갔던 너희들의 몫을 이제야 돌려받은 것이라 생각'하라며 '고마워할 필요'가 없다고 전한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⑤: [A]의 필자는 자신이 하늘의 심부름을 하였으며 자신에게는 공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7.

정답

④: ㉔에서 신하는 우치의 도술을 예측할 수 없으니 소홀히 하다가 놓칠 수도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해설

- ①: ㉔에서 포교가 사온 황금을 통해 태수는 우치가 황금 들보를 가져간 사람이라 의심하게 된다. 하지만 ㉔는 상대방의 공을 치하하는 공간이 아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㉔에서 우치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병 속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㉔에서 이것이 간파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실패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애초에 우치가 병 속으로 들어간 것은 장교와 포교들에게 잡히지 않기 위한 것이었는데, ㉔에서 우치는 이미 붙잡혔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㉔에서 우치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달려들자, 병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다. 우치가 병 속으로 들어가자 상대방이 이때를 노려 달려든 것이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㉔에서 우치가 일으킨 사건은 ㉔에서 우치가 받는 처벌의 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8.

정답

③: 포교들이 우치를 잡은 자조지종을 설명하자 왕이 '사람이 어찌 병 속에 들어갈 수 있겠'냐고 하는 것은, 서로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는 권력층의 부정적 면모를 확인할 수 없다. 포교는 권력층이 아닐뿐더러, 왕에 대한 포교들의 불신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 ①: 전우치가 백성들에게 쌀을 나누어주고, 이에 대하여 백성들이 우치를 칭송하는 것에서,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당대 백성의 소망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②: 전우치가 '순식간에 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도술을 사용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④: 전우치는 왕에게 자신을 잡아서 혼넬 정신이 있다면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데 힘을 쓰'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우치의 모습은 당대 백성의 무능한 권력층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⑤: 왕이 '모든 병 조각'을 기름에 넣어 끓이게 했으나 우치가 '덜쟁한 머슴'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치가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도술을 활용하여 극복하는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17회]

독서

아도르노의 부정변증법

1. 답 ④

해설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사회적 비판 이론은 근대적 이성을 이용한 권위주의적 사회를 비판한다고 서술되어 있으며, 4문단에서는 부정변증법의 역동적 측면을 강조하며 그 의의를 밝히고 있다. (나)의 1문단에서도 부정변증법이 기존의 권위주의적 사회의 부작용을 탐색하는 데에 의의를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두 글 모두 기존의 권위주의적 세계를 비판하고 있으며, 부정변증법의 의의를 언급하고 있다.

오답넘기

- ① (가)의 1문단에 따르면 근대적 이성은 다양화가 아닌 보편화와 획일화를 통해 개인을 억압한다. 따라서 근대적 이성의 다양화를 통한 권력 관계와 억압 구조는 확인할 수 있다.
- ② (가)의 2문단에 따르면 새로운 부정이 도입되었으나 합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긍정적 함의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③ (나)의 3문단에 따르면 부정변증법은 수렴적 동력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부정변증법은 수렴적 동력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 ⑤ (나)는 부정변증법의 실천적 한계를 지적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는다.

2. 답 ③

해설

(가)의 4문단에 따르면 부정변증법은 완결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완결된 진리에 예측되는 것을 경계한다. 따라서 부정변증법이 완결된 진리로의 방향성을 제시한다고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오답넘기

- ① (가)의 3문단에 따르면 부정변증법은 일직선적 발전 논리를 거부하며, 부정의 개념을 재규정하는 것과 부정이 종합되는 것을 거부하는 유효적 태도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가)의 3문단에서 부정은 합으로 종합되는 것

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가)의 1문단과 4문단에 따르면 부정변증법은 기존의 억압적 방식을 폭로하고, 근대적 이성의 확실성을 의심하는 수단이다.
- ⑤ (가)의 4문단에서 부정변증법은 지속적으로 개념과 현실의 차이를 드러내며 실제 현실의 다양성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3. 답 ②

해설

(나)의 2문단에 따르면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언어와 개념이 필수적이다. 언어와 세상, 즉 개념과 대상의 불일치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므로 이를 끝없이 유효할 수 없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넘기

- ① 아도르노는 언어와 개념의 대안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 ③ 아도르노 또한 차이와 다양성을 추구하였지만, 이러한 차이와 다양성 자체가 인간의 현실 개념과 소통을 방해한다고는 볼 수 없다. 현실 개념과 소통을 어렵게 하는 것은 아도르노가 차이와 다양성을 추구하는 방법에서 기인하였다.
- ④ ㉠은 아도르노의 견해를 비판하는 것이므로, 언어와 개념의 근대적 사용을 재고한다는 아도르노와 동일한 견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⑤ 기존 변증법은 부정을 합으로 종합하는 논리를 가지므로, 부정변증법이 기존 변증법의 논리를 그대로 따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4. 답 ③

해설

(가)의 아도르노는 기존 변증법이 근대적 이성을 옹호하고 강화한다고 비판하며 기존 변증법의 일직선적 발전 논리를 거부하는 것을 권력 관계에 예측되는 것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한다. (나)의 글쓴이 또한 아도르노의 '부정'이 기존 권위와 구조를 무너뜨릴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므로 이는 아도르노와 (나)의 글쓴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술로 볼 수 있다.

오답넘기

- ① (가)의 아도르노는 부정변증법이 사유의 틀임을 밝혔지만 새로운 사회적 기반을 세우는 방법에 대한 견해는 밝히지 않았다. (나)의 글쓴이는 부정변증법의 수렴적 동력의 부재를 지적하고 있기에 적절하지 않다.
- ② (가)의 아도르노는 부정변증법의 한계를 밝히지 않았으며, (나)의 글쓴이는 부정변증법의 새로운 '부정'의 도입만으로는 미래적 전망을 제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가)의 아도르노와 (나)의 글쓴이 모두 전위 예술이 대중 문화를 대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지 않는다.
- ⑤ (가)의 아도르노와 (나)의 글쓴이 모두 부정변증법이 근대적 이성과 기존의 변증법으로 대표되는 일직선적 발전 논리를 해체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이 과정에서 개념과 대상의 대립이 해소되지 않다고 보지 않으며, 개념과 대상이 대립하고 불일치하게 된다고 본다.

5. 답 ④

해설

언어와 개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관점에 따르면 개인은 개념이 대상을 단순화하는 과정 없이 현실에 개입하거나 소통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한 시도로, 입체파의 방식은 소통의 다양성을 간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오답넘기

- ① 근대적 이성의 억압을 문제 삼는 관점은 권위주의를 거부하고 해체하는 방향을 추구한다. 따라서 전위 예술은 기존의 합리성을 거부하며, 권위주의의 탈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수 있다.
- ② 수렴적 동력의 부재를 우려하는 관점은 대안적 문화 형성을 강조하며, 전위 예술만으로는 한계를 가진다고 평가한다. 또한 수렴적 동력의 부재는 예술의 위계를 포괄하는 실천적 전략이 부족하다는 것과 맞닿아 있으므로, 전위 예술을 넘은 대안적 문화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반응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 ③ 진리의 완결을 부정하고 해방을 추구하는 관점은 기존 질서의 파괴와 새로운 사고 방식을 추구한다. <보기>에 따르면 전위 예술은 새로움과 혁신을 추구하며 기존의 합리성을 거부하고 규범을 파괴하는 예술이다. 진리의 완결을 부정하고 해방을 추구하는 관점은 규범을 파괴하는 사유의 틀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 ⑤ 현실의 다층적·복합적 측면을 인정하는 관점은 근대적 이성의 확실성을 해체하는 방향을 지향한다. 다다이즘의 무의미한 의미 창출 과정은 기존 합리성을 거부하고 규범을 파괴하는 것이므로, 이를 근대적 이성의 확실성을 해체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다.

6. 답 ②

해설

⑤의 '뒤틀림하다'는 '지직하고 뒹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잘못 된 것이나 부족한 것 따위를 고쳐 좋게 만듦다.'의 의미를 가진 '개선한다'로 바꾸어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넘기

- ① ㉠의 '일컨대'는 '가리켜 말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어떤 대상을 가리켜 이른다.'의 의미를 가진 '지칭한다'로 바꾸어 쓰는 것은 적절하다.
- ③ ㉢의 '열다'는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영역, 운명, 진로 따위를 처음으로 열어 나간다.'의 의미를 가진 '개척하다'로 바꾸어 쓰는 것은 적절하다.
- ④ ㉣의 '이끌다'는 '목적하는 곳으로 바로 가도록 같이 가면서 따라오게 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판단이나 결론 따위를 이끌어 내어'의 의미를 가진 '도출해'로 바꾸어 쓰는 것은 적절하다.

현대시

(가) 신동집, 「목숨」

(나) 구상, 「초토의 시 1」

7. 답 ②

정답

- ②: (나)의 '울상이 된 그림자'라는 구절과 '그림자 웃으며 앞장을 선다.'라는 구절을 통해 대상의 태도변화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해설

- ①: (가)는 '너랑 살아 보고 싶더라'에서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밝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③: (가)에는 '죽은 자는 살은 자를 고발하라'라는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었으나, (나)에는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④: (가)와 (나) 모두 청유형 문장이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⑤: (가)는 '살은 자는~'과 '죽은 자는~'이라는 유사한 구절이 반복되고, (나)에는 '햇발이 눈부시어 돌아선다.', '나도 돌아선다.'와 '그림자 나의 뒤를 따른다.', '그림자 웃으며 앞장을 선다.' 같은 유사한 구절들이 반복된다. 하지만 (가)와 (나) 모두 이를 통해 과거에 대한 회한을 표현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8.

답 ③

정답

- ③: '백조'가 살아서 돌아오길 바라는 것을 보면 '백조'는 긍정적인 시어이며 부정적인 시어인 '페' 문은 '목숨'과 대비되는 시어이다. 또한 '돌아오라'라는 표현은 기존의 상태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해설

- ①: '우리'는 전쟁을 의미하는 '포연'의 추억 속에서 죽은 자를 뜻하는 '없어진 이름'들을 부르고 있다. 그러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②: '어쩌면'이라는 가정을 통해 '신명'나는 이상을 기대하고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④: '눈부시어' '나'가 돌아서고 '울상이 된 그림자'가 '나'의 뒤를 따르는 것으로 보아 '눈부시어'는 부정적인 속성을 지닌 시어이므로 긍정적 속성을 나타낸 것이라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⑤: '망울졌다'는 꽃이 피기 직전의 상태로, 꽃이진 상황을 제시한 것도 아니며, 희망을 나타내는 표현이라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9.

답 ③

정답

- ③: (가)는 살아남은 화자의 고뇌와 미래에 대한 기대의 대비를, (나)는 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상황과 희망을 의미하는 아이들을 대비하여 시상을 전개한다. (가)에서 '모양 없이 지워질 숨자리'는 '많은 시공'이 지나 지워진 것으로 '백조'가 살아서 돌아오는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적절하다. 하지만, (나)에서 '앞나가 빠져'를 희망의 이미지와 대비된다는 표현은 <보기>에서 희망을 의미하는 아이들에 대한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 ①: '목숨의 조건은 고독하다'라고 말하는 주체가 화자이며, 화자가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기>에 의하면 (가)는 살아남은 자의 존재론적 갈등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②: <보기>에 제시된 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모습은 전쟁 피해자의 모습과 희망을 동시에 제시한다고 할 수 있고, 이는 '소녀'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속성을 모두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④: (가)의 '살은 자'에 대한 '죽은 자'의 고발은 실제로 고발할 수 없는 '죽은 자'에게 '살은 자'를 고발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이는 <보기>에 제시된 살아남은 자들이 느끼는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나)의 '햇더미가 소복한 울타리'는 <보기>에 제시된 전쟁의 폐허이고, '개나리'는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희망을 의미하기 때문에 두 대상은 대비된다. 그러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⑤: <보기>에 제시된 (가)의 내용에 따르면 갈등하는 생존자는 미래에 대해 낙관적으로 기대한다. 이는 '신명나게'라는 표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나)의 화자가 '골목'으로 걸음을 걸은 이유는 2연의 '햇발'이 눈부시기 때문인데, 이는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회피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걸음을 멈춘 행위는 본인의 태도에 대한 회의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